

2023. 2. 1.(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2133-7240
안심집수리지원팀장	변종진	2133-7259
담 당 자	정성재	2133-7262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집수리 고민 해결해 드려요' 서울시 26(월)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사용승인 후 10년 넘은 저층주택 대상, 건축 전문가인 '집수리 전문관' 직접 방문
-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법, 공사서류 검토 등... 올해부터 주말에도 상담 제공
- '집수리닷컴' 통해 상시 접수, 무료상담 제공... 1월 '집수리 전문관' 101명 위촉
- 시 "집수리 상담, 지원제도 통해 노후 주거환경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길 기대"

-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 중인 집수리 상담서비스가 새 단장을 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된다.
- 서울시는 2.6(월)부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검색창에 집수리닷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는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이 신청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비롯해 개선방법,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서울시는 2016년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1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 상담범위는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올해 부터는 (비교)견적서·(가)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기존('21년~'22년)	변경('23년~'24년)	비 고
주중 상담	○	○	
주말 상담	×	○	확대
주택상태 진단	○	○	
시공방법 제시	○	○	
공사서류 검토	×	○	확대

〈집수리 상담범위 변경 비교표〉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 집수리 상담은 '저층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위반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서울시는 상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개편,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상담결과 확인 전 간단한 문답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상담서비스 개선, 이용자 의견 수렴, 집수리 전문관 제도 개편 시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 지난 1.27(금) 서울시청(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 시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선발했으며 위촉 전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교육도 마쳤다. 이들은 내년 12월까지 2년간 '서울시 집수리 전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8권역			9권역		
지역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인원	11			11			14			11			14			10		10			10			10		

〈집수리 전문관 권역별 배치현황〉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역량 있는 '집수리 전문관'을 새롭게 선발하고 상담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다 만족도 높은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수리 상담서비스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1〉

집수리 전문관 위촉식

